

梅泉 輓詩의 文藝美 研究*

김진욱**

차 례

1. 序論
2. 傳統의 逸脫과 形式
 - 2.1. 傳統의 逸脫
 - 2.2. 傳統의 逸脫과 輓詩의 形式
3. 梅泉 輓詩의 文藝美
 - 3.1. 情緒의 內面化, 沈着
 - 3.2. 悲哀의 吐露, 悲慨
4. 結論

| 국문초록 |

輓詩는 한시의 하위 장르로서 시적 소재가 죽음이고, 주제가 죽음을 애도하는 작품을 일컫는다. 만시는 이와 같이 '죽음'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창작되어진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시대적 인식과 개인적 인식의 차이에 따라 각각의 작품은 유사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갖는다. 작품의 유사성은 典型性으로 장르적 특성을 축적하여 왔고, 차별성은 만시를 문학 작품으로의 가치, 예술 작품으로의 가치를 부여해 왔다.

매천은 만시에 있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남긴 인물이다. 그러므로 그의 만시를 연구하는 작업은 한국 만시의 마지막 모습을 재구한다는 의미와 매천 문학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준다는 의미를 동시에 아우를 것이다.

특히 매천 만시의 문예미를 고찰함으로써 매천 만시의 어떤 점이 그의 작품에 예술성을 부여하고 있는가를 규명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이것은 한 개인의 천재성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문학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토양의 문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아가 만시가 지닌 독특한 문학적 성과를 추출하여 과거 儒者 지식인들

* 이 논문은 2016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규명하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다.

만시는 죽음을 접하고 죽음을 소재로 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그래서 감정의 표출이 격하게 일어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과 같이 가까운 이의 죽음을 접하고 그 슬픔을 내면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의례적인 만시가 아닌 경우 만시에서는 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매천의 만시에는 이러한 감정을 내면화 하여 죽음을 객관화 하는 작품이 많다. 매천의 만시에 나타난 죽음은 의례적인 만시의 죽음과는 다르다. 그 귀결점이 모두 객관화된 죽음, 죽음과의 거리두기로 나타났으나 그 과정이 판이하다. 司空圖의 二十四詩品 중 沈着의 의경이 매천 만시의 특성이다. 매천은 당대의 만시와 달리 죽음과의 거리두기, 객관화를 통하여 작품의 眞景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것이 매천 만시의 아름다움이다.

司空圖의 二十四詩品 중 만시에 가장 어울리는 의경이 悲慨일 것이다. 만시는 죽음을 노래하니 당연히 슬퍼하고 개탄하는 심정이 곡진하게 우러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만시의 의례적 성격과 관용적 제작 형태가 만시에서 비개의 정서를 찾아보기 어렵게 만든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개가 매천의 만시에서는 훌륭하게 수용되고 있다.

매천의 만시에는 망자에 대한 슬픔과 비탄이 곡진하게 표현되고 있다. 喪事에서는 슬픔이 가장 앞서야 한다. 슬픔이 사라지면 의례만 남게 된다. 만시 역시 슬픔이 가장 앞서야 하는데 이를 잘 보여준 시인이 매천이다. 그러므로 매천 만시의 아름다움은 悲慨에 있다고 하여도 크게 무리가 아닐 것이다. 매천은 만시 창작에 있어 沈着과 悲慨의 의경을 작품 속으로 가져와 그만의 아름다움을 획득하였다.

핵심어 : 梅泉, 黃玆, 沈着, 悲慨, 司空圖, 二十四詩品

1. 序 論

輓詩는 한시의 하위 장르로서 시적 소재가 죽음이고, 주제가 죽음을 애도하는 작품을 일컫는다. 가까운 이의 죽음을 접하고 느끼게 되는 감정이 특별하다는 것은 증거가 불필요한 사실이다. 이러한 특별한 감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출되고 전이된다. 그 중의 하나가 만시의 창작이다.

만시는 이와 같이 ‘죽음’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창작되어진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시대적 인식과 개인적 인식의 차이에 따라 각각의 작품은 유사

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갖는다. 작품의 유사성은 典型性¹⁾으로 장르적 특성을 축적하여 왔고, 차별성은 만시를 문학 작품으로의 가치, 예술 작품으로의 가치²⁾를 부여해 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만시 연구는 장르의 특성 연구와 개별 작가의 문예미를 고찰하는 두 가지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³⁾

매천 황현은 1855년에 태어나 1910년에 생을 마감하였으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살다간 인물이다. 그는 뛰어난 역사학자요, 시인이었다. 매천 황현에 대한 그간의 많은 논의는 그를 한시 문학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인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⁴⁾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매천 만시의 文藝美이다. 매천은 만시에 있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남긴 인물이다.⁵⁾ 그러므로 그의 만시를 연구하는 작업은 한국 만시의 마지막 모습을 재구한다는 의미와 매천 문학

- 1) 안대회, 「한국 한시의 죽음의 문제」, 『한국한시연구』 3권, 한국한시학회, 1995, 51쪽.
- 2) 안대회, 『한국 한시의 분석과 시각』,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54쪽. 만시가 이렇게 인간 의 죽음의 의식에 필요한 상투적인 풍습이 되어 극단적인 폐해까지 발생하였으나 기본적으로 그 속성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앞에 두고 느끼는 슬픔과 애도의 정감을 충실하게 담은 문학이라는 점은 변질될 수 없는 것이다. 그 점을 인정하듯이 만시의 근본적인 기능과 의미를 잃지 않은 우수한 작품이 우리 한시 문학에서는 창작되었다. 특별히 조선 후기에는 명작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창작되었다.
- 3) 학계에서 그 동안 輓詩 研究는 시대사적 연구와 개별 작가의 만시 연구라는 두 축으로 진행되어 왔다. 전자의 경우 윤인현(「고려 조선 유자의 만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56권, 한국한문학회, 2014), 안대회(「한국 한시의 죽음의 문제」, 『한국한시연구』 3권, 한국한시학회, 1995), 하정승(「고려후기 만시(輓詩)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동방한문학』 50권, 동방한문학회, 2012.) 등의 연구가 있다. 후자의 경우 김진옥(「울곡 이이 만시 연구」, 『문화와 융합』 43집, 한국문화융합학회, 2016), 윤재환(「옥동 이서의 만시를 통해 본 조선조 만시의 일양상」, 『한민족어문학』 65호, 한민족어문학회, 2013), 손유진(「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의 만시(輓詩)를 통해 본 죽음의 형상화(形象化) 방식(方式)」, 『퇴계학과 유교문화』 54권,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4.) 등이 있다.
- 4) 매천은 전통적인 한시 수업을 받았으며, 學詩에 유달랐으며, 뛰어난 한시 작가였다. 이 부분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로 李秉岐(『매천시 연구』, 보고서, 1995.) 기태완(『梅泉詩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金晉郁(『梅泉 黃玗의 〈和小川論詩六絕〉 研究』, 『고시가연구』 30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2.), 황수정(『梅泉 黃玗의 詩文學 研究』,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의 논문 등이 있다.
- 5) 李秉岐, 『梅泉詩 研究』, 보고서, 1995; 허경진, 「매천의 죽음과 문학적 성과」, 『민족문화』 36집, 한국고전번역원, 2010; 기태완, 『황매천시연구』, 보고서, 1999.

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준다는 의미를 동시에 아우를 것이다.

여기에서 논의할 매천 만시는 매천 사후 상해에서 김택영이 발간한 상해판 『梅泉集』으로 한정하고자 한다.⁶⁾ 문학 작품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의 상호 간섭을 인정한다면 분석의 대상이 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매천 만시의 문예미를 고찰함으로써 그 동안 만시에 대해서 가졌던 부정적 인식을 쇠신하고자 한다.⁷⁾ 매천 만시의 어떤 점이 그의 작품에 예술성을 부여하고 있는가를 규명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이것은 한 개인의 천재성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문학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토양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아가 만시가 지닌 독특한 문학적 성과를 추출하여 과거 儒者 지식인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규명하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다.

2. 傳統의 逸脫과 輓詩의 形式

2.1. 傳統의 逸脫

한시 장르에서 만시의 창작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다.⁸⁾ 만시는 친한 이

6) 매천의 전체 작품 수는 2,500여수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전모의 파악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여기에서는 상해판 『梅泉集』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상해판 『梅泉集』은 매천 사후 1911년에 그의 평생 벗이었던 창강에 의하여 발간되었다. 이후 1913년에 속집이 발간되어 상해판 『梅泉集』은 9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상해판 『梅泉集』은 뛰어난 비평가였던 창강이 그의 벗 매천의 작품 중 선별하여 책으로 엮었다는 장점이 있고, 수록된 전체 작품 수가 839수로 비교적 여러 통계를 내기에 적합한 숫자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7) 윤인현(「고려 조선 유자의 만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56권, 한국한문학회, 2014, 141쪽.)의 “만시가 상투적이면서 의례적이고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치장되었다고 평한 일부 연구자들의 연구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완곡하다. 상당수의 선학들이 만시를 의례적인 창작물, 전형화된 방법으로 창작되어지는 수사물, 심지어 ‘응부문자’로 규정하였다.

8) 하정승, 「고려후기 만시(輓詩)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동방한문학』 50

의 죽음과 직면하여 창작되었기에 기본적으로 哀悼라는 정서에 기반 하였다. 이러한 만시 창작의 전통이 조선조에 들어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성리학의 영향으로 儀禮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만시는 상례에 쓰이는 만장의 제작을 위한 도구로까지 사용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 여기에 대한 안대회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조선조 전기 만시에 대한 한 측면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喪이 나가게 되면 죽은 자를 애도하는 명정과 만장이 그 뒤를 따르게 되는데 이 때 각인에 의하여 지어진 만시를 적은 만장의 수요는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 사회적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中略 만시는 그 특유의 상투성을 벗어나기 어려워 수많은 만시는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기가 쉬웠다. 또한 죽은자에 대한 과장된 칭도로 인해 그저 의례적인 문자에 불과한 지경에 빠지기도 하였다.⁹⁾

성리학이 만장의 儀禮를 중시한 결과 만시가 비슷한 내용으로 점철되고, 依禮的 수사로 표현된 상투적이면서 형식적인 작품이 되었다는 안대회의 지적에 많은 연구자가 동의하고 있다.¹⁰⁾ 이와 같이 조선조 전기 만시는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작품이 많았으며, 작품의 내용 역시 지나친 비탄과 찬양이 주를 이루

-
- 권, 동방한문학회, 2012, 35쪽. 우리나라 만시 창작의 전통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고려시대 시인들 중 만시를 남긴 작가로는 김부식을 필두로 김극기, 최해, 이규보, 임춘, 최자, 안축, 이제현, 이곡, 이색, 이집, 정몽주, 김구용, 이숭인 등을 꼽을 수 있다. 문학사에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치고 만시를 남기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안대회, 「한국 한시의 죽음의 문제」, 『한국한시연구』 3권, 한국한시학회, 1995, 50쪽. 우리문학사에서 만시가 쓰여진 효시로는 물론 월명사의 〈제망매가〉를 꼽을 수 있고, 한시의 경우 고려 명종이 內嬖 명춘의 죽음을 슬퍼한 도망시를 찾아볼 수 있다.
- 9) 안대회, 「한국 한시의 죽음의 문제」, 『한국한시연구』 3권, 한국한시학회, 1995, 51쪽.
- 10) 손유진,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의 만시(輓詩)를 통해 본 죽음의 형상화(形象化) 방식(方式)」, 『퇴계학과 유교문화』 54권,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4, 253-276쪽.
- 朴浚鎬, 「만시에 대한 일고찰」, 『동방어문학』 19집, 동방어문학회, 2000.
- 윤재환, 「옥동 이서의 만시를 통해 본 조선조 만시의 일양상」, 『한민족어문학』 65호, 한민족어문학회, 2013.
- 이정화, 「퇴계 이황의 만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9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0.

었다.

이러한 만시 창작의 관습이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모든 예술이 그러하듯이 문학은 사회와의 직접적인 영향 속에서 생성되고 유통된다. 특히 우리 문화사에서 조선 후기 사회는 격동기였다. 사회 곳곳에서 봉건주의의 몰락과 신세계의 대두가 충돌하는 시기였다. 이것은 만시의 제작 관행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고, 동일한 맥락에서 매천의 만시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다음은 이러한 시기에 사회적 영향을 받은 매천 문학에 대한 金晋郁의 평이다.

우리 문화사에서 18세기는 격동의 시기였다. 중세의 붕괴가 곳곳에서 나타났으며, 새로운 질서를 찾고자하는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던 시기였다. 음악에서는 판소리가 등장하였고, 미술에서는 진경산수화와 풍속도가 등장하였다. 국문학 역시 사설시조의 확장과 더불어 전통 미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한시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 典範에 대한 고민이 일어났으며, 법고에 대한 회의가 일었던 것이다. ……(中略)…… 매천 문학의 근대성은 이러한 한시사의 변화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¹¹⁾

이와 같은 사회적 영향을 받아 조선후기의 작품성이 뛰어난 시는 만시의 전형성에서 탈피하여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소재나 표현에서 한국적인 인정물태를 사실적으로 보여주어 조선후기 한시의 일반적 경향을 만시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¹²⁾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은 어디까지나 한편으로만 유효했다. 그래서 구한말 만시의 제작은 관행적 제작이라는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의미의 추구라는 일탈적 제작 방식으로 나누어져 나타나고 있다. 매천의 만시는 이러한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매천 만시에 이러한 시대적 특성이 즉자적

11) 金晋郁, 「매천 자연시에 투영된 근대성 연구」, 『남도문화연구』 27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4, 112-113쪽.

12) 안대회, 『한국 한시의 분석과 시각』,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83-84쪽.

으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 박금규의 “매천의 시론은 과거의 답습에 더 치우쳐 있었다.¹³⁾”는 지적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천 만시는 기존 관행적 제작 방식에서 일탈하여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형식의 일탈보다는 의경의 일탈에서 더욱 돋보였고, 이것이 매천 만시의 문예미를 우수하게 만들었다.

2.2. 梅泉 輓詩의 形式

매천은 근체시와 고체시에 모두 능통하였다.¹⁴⁾ 그러나 실제 작품 창작의 양에 있어서는 근체시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인다.¹⁵⁾ 근체시에서는 오언보다 칠언이 4배 이상 많으며, 율시가 절구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배율시는 오언에서 2수가 보일 뿐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매천시의 절반 정도가 칠언율시이다.¹⁶⁾ 매천시 전체 형식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13) 박금규, 「매천 황현의 〈논시절구〉 연구」, 우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14) 이병기, 『매천시 연구』, 보고서, 1995, 207쪽. 매천시는 외형면에서 다양성을 보여 준다. 학자 시인이라서일까. 크게는 고체시법과 근체시법을 즐겼는데, 전자에는 5언절구 ... 하략...
- 김정환, 「매천 황현의 구안실신고 연구」, 『한문학보』 제12집, 우리한문학회, 2003, 435-436쪽. 김정환은 매천시의 유형을 13가지로 구분하였다.
- 15) 김영봉은 『매천전집』에 전하는 1,015수의 작품에서 중복된 작품을 제외한 986수의 작품 중 근체시가 855편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한다고 지적하였다.(김영봉, 「매천 시의 배율에 대하여」, 『고시가연구』 제1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97쪽.) 또한 김정환은 매천시의 전체 규모를 2,303수로 보고 이 중 2,053수가 근체시라고 하였다.(김정환, 앞의 논문, 436쪽.) 이것은 89%에 해당한다.
- 16) 매천시에서 칠언 율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다양한 각도에서 추론해 보아야 한다. 다만 칠언율시에 정통하였던 육유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지적하고자 한다. 매천은 스스로 〈讀劄南集〉(『梅泉集』, 卷三, 249쪽)이라는 시에서 자신은 송시를 좋아하고, 그 중에서 육유시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하였다. 이병기 역시 매천시에 영향을 끼친 중화시인으로 소동파와 육유를 들고 있으며(이병기, 위의 책), 기태완도 육유가 매천의 칠언율시에 끼친 영향을 심도 있게 언급하였다.(기태완, 『황매천시연구』, 보고서, 1999.) 황수정 역시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라는 논문에서 소동파와 육유를 별도의 장으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황수정,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논문, 2006.) 모든 매천 연구자가 매천시에 끼친 육유의 영향을 언급하고 있으며, 매천은 특히 육유의 칠언율시를 좋아하였다. 매천이 육유시를 차운한 71수의 작품 중에서 단 1수만이 오언

표 1. 매천 시 형식¹⁷⁾

시형	문체	작품수	비율	비고
고체시	詞	8	0.37	목판본
	악부체	14	0.66	목판본
	사언율시	5	0.23	목판본
	육언절구	12	0.56	목판본
	육언고시	1	0.05	필사본
	오언고시	125	5.90	목판본
	칠언고시	66	3.11	목판본
근체시	오언배율	3	0.14	필사본
	오언절구	92	4.34	목판본
	오언율시	275	12.98	필사본
	칠언배율	1	0.05	목판본
	칠언절구	587	27.71	
	칠언율시	929	43.86	
총계		2,118수	100%	

〈표 1〉에서 보이듯이 칠언율시는 매천이 가장 자주 사용하였던 형식이다.¹⁸⁾ 칠언절구는 냉철한 이성을 필요로 하는 論을 할 때와 悲憤慷慨가 도가 지나쳐 율시 형식을 수용하기 어려운 감정의 폭발¹⁹⁾이 일어났을 경우로 보인다. 이러한 매천의 작시 태도는 만시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율시이고, 나머지 70수의 작품이 칠언율시이다.

17) 金晋郁, 「傳統과 近代, 意識과 無意識의 境界點 〈園植十五咏〉 研究」, 『고시가연구』 24집, 2009, 46쪽.

18) 黃玆, 〈集聯序〉, 『文墨萃編』 上 67쪽. 매천이 시 창작에 있어서 율시를 추구하였다는 것은 여러 문헌에 그 기록이 나온다. 그 중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集聯序〉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詩屢變而爲律詩 律固詩之最精者也 而聯句加以對偶 盖尤精且難工也 故名篇秀句 多以聯傳.

19) 기대완, 앞의 책, 225쪽. 기대완은 〈聞變三首〉와 〈絕命詩〉의 풍격을 논하면서 '悍厲' 하다고 평하였다. 한려는 맹렬하고 격렬함이다. 시의 내용과 표현에서 굴하지 않는 지절정신과 비판정신이 드러나 있기에 한려라고 평한 것이다.

이병기는 매천시를 소재별로 분류하면서 輓詩를 憂國詩에 이어 두 번째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은 매천 만시를 이해하는데 크게 일조하리라 판단한다.

슬픔에 임하여서는 연상이든 연하든 더욱 위로하는 뜻을 아끼지 않았으며 천하건 천하지 않건 간에 감정이 작동하기만 하면 많은 조만시를 남겼다. …… (中略) …… 형식은 어떤 시형으로 즐겨 지었던가. 시가 길어진다면 복받치는 설움이 한량없었던 것이겠고, 짧으면 짧은 대로 더욱 핏절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매천 당시의 시작의 기호와 호남시사 중심의 유행적 관행과 교의적 배경이나 소재도 살펴보아야 옳을 것이다. …… (中略) …… 매천의 시 가운데 고체시가 적은 것도 아니지만 弔挽의 시에 있어서만은 철저하게 근체시법을 즐기고 있다.²⁰⁾

매천 만시 형식의 주요한 특성은 위의 두 가지이다. 첫째 매천은 대단히 많은 만시 작품을 남겼다는 점이다. 송강 정철은 741수의 한시 작품 중 19수의 만시를 창작하였다. 비율은 2.6%에 해당한다.²¹⁾ 옥동 이서는 1,300수의 작품 중 67수의 만시를 남겼으니 5.1%에 해당한다.²²⁾ 율곡 이이는 517수 중 23수이니 4.4%이다.²³⁾ 여기에 반해 매천 황현은 839²⁴⁾수의 작품 중 94수의 작품이 만시이니 비율로 따지면 11.2%이다. 10수 중 1수의 작품이 만시라는 사실이다.

매천 만시 형식의 두 번째 주요한 특성은 “弔挽의 시에 있어서만은 철저하게 근체시법을 즐기고 있다.”라는 이병기의 지적이다. 매천 만시 94수 중 90수가 근체시법으로 창작한 작품이다. 율곡 이이의 경우 23수의 만시 중 근체시는 13수, 고체시는 11수이다.²⁵⁾ 또한 金晋郁은 위의 논문에서 “만시의 특성

20) 李秉岐, 『梅泉詩 研究』, 보고서, 1995, 101-102쪽.

21) 윤인현, 「고려 조선 유자의 만시 연구」, 『한국한문학회연구』 56권, 한국한문학회, 2014.

22) 윤재환, 「옥동 이서의 만시를 통해 본 조선조 만시의 일양상」, 『한민족어문학』 65호, 한민족어문학회, 2013, 132쪽.

23) 金晋郁, 「栗谷 李珣 輓詩 研究」, 『문화와 융합』 43집, 한국문화융합학회, 2016, 386쪽.

24) 金澤榮이 發刊한 上海板 『梅泉集』에 수록된 839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상 고시가 많이 사용된 것은 특이할 점이 아니다.”라며 만사에서 고시의 사용이 다른 장르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하다는 걸 말하였다.

그러므로 매천의 만시가 근체시에 이정도 경도되어 있는 사실은 대단히 특이할 만하다. 매천 만시의 구체적 형식은 다음과 같다.

표 2. 매천 만시 형식²⁶⁾

시형	문체	작품수	비율	비고
고체시	五言古詩	2	2%	4수 4%
	六言古詩	1	1%	
	七言古詩	1	1%	
근체시	五言律詩	7	8%	90수 96%
	七言絕句	22	23%	
	七言律詩	61	65%	
통계		94수 ²⁷⁾	100%	

매천 만시의 형식을 보면 우선 七言律詩를 대단히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매천시의 특성이므로 만사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고 본다. 七言絕句의 경우도 매천시의 전체 특성과 크게 차이가 없다.

매천 만시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오언시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나마 五言律詩는 7수가 보이거나 五言絕句는 1수가 보이지 않는다. 만시의 특성상 최소한의 辭가 필요하기에 五言絕句가 합당치 않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매천의 七言絕句를 살펴보면 연작시가 아닌 경우는 단 1수이다.²⁸⁾ 이것은

25) 金晉郁, 위의 논문, 386쪽.

26) 金澤榮이 發刊한 上海板 『梅泉集』에 수록된 839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7) 黃玿, 『梅泉集』(上海本). 가장 넓은 의미의 만시로써 자만시, 회인시, 추모시를 모두 포함하였다.

28) 黃玿, 『梅泉集』卷四, 〈哭光陽南景烈〉.

오언시에 있어서 절구보다 고시를 더욱 선호하였던 매천시의 특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²⁹⁾

매천 만시의 형식적 특성은 매천시 형식과 궤를 같이하나, 근체시의 사용이 더욱 압도적이고, 오언절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근체시 중 칠언율시의 사용 빈도가 61수 65%로 매천은 만시 창작에 있어서 칠언율시를 무척 선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梅泉 輓詩의 文藝美

3.1. 情緒의 內面化, 沈潛

司空圖³⁰⁾는 시의 의경을 二十四詩品으로 구분하였다. 司空圖의 二十四詩品은 1. 雄渾 2. 沖澹 3. 纖穠 4. 沈着 5. 高古 6. 典雅 7. 洗鍊 8. 勁健 9. 綺麗 10. 自然 11. 豪放 12. 含蓄 13. 精神 14. 縝密 15. 疏野 16. 清奇 17. 委曲 18. 實景 19. 悲慨 20. 形容 21. 超詣 22. 飄逸 23. 曠達 24. 流動이다. 이 가운데 沈着은 4번째 詩品으로 작품 내용이 들뜨지 아니하고 차분함 분위기의 의경을 이야기 한다. 사공도는 沈着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綠杉野屋	초록 삼나무 늘어선 시골집에,
落日氣清	지는 해에 공기는 맑기만 하네.
脫巾獨步	두건을 벗고 혼자 걸으며,
時間鳥聲	때때로 새소리 듣는다네.

29) 金晉郁, 「傳統과 近代, 意識과 無意識의 境界點 〈園植十五咏〉 研究」, 『고시가연구』 24집, 2009, 46쪽. 五言絶句는 4.34%이고 五言古詩는 5.90%이다.

30) 네이버백과사전. 사공도(司空圖, 837-908)는 당나라 말의 시인으로 그의 대표적 詩 작품인 二十四詩品은 시의 意境을 24품으로 나누어, 각 품에 4인의 韻語에 12구를 형성하여 모두가 288구로 장문의 시작을 하였는데 각 意境의 품격을 상징적이며 해설적으로 표현하였다. 사공도의 문집에는 『司空表聖文集』 10권과 시집 5권이 전해지고 있다.

鴻雁不來 기러기는 오지도 않고,
 之子遠行 그대는 멀리 떠났도다.
 所思不遠 그대를 생각함은 멀어지지 않으니,
 若爲平生 평생을 같이 하는 듯하여라.
 海風碧雲 바닷 바람 이는데 푸른 구름 피어나고,
 夜渚月明 밤 물가에 달빛이 밝도다.
 如有佳語 이 기분 표현할 좋은 말 있다면,
 大河前橫 큰 강물 앞에 가로누운 듯하여라.

〈沈着〉³¹⁾

만시는 죽음을 접하고 죽음을 소재로 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그래서 감정의 표출이 격하게 일어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과 같이 가까운 이의 죽음을 접하고 그 슬픔을 내면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수궁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의례적인 만시가 아닌 경우 만시에서는 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³²⁾

매천의 만시에는 이러한 감정을 내면화 하여 죽음을 객관화 하는 작품이 많다.³³⁾ 이병기는 매천의 〈過寧齋墓〉³⁴⁾를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898년에 영재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 시를 쓴 1909년까지는 12년째이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독자청청하며, 고결하게 살았던 영재의 모습을 회상하고 추모하고 있다. 특히 尾聯에서 머지않아 이승을 떠나리라는 글을 쓰고 있어 시인 스스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³⁵⁾

31) 司空圖, 〈二十四詩品〉, 作品番號 四.

32) 金晉郁, 「울곡 이이 만시 연구」, 『문화와 융합』 43집, 한국문화융합학회, 2016.

33) 조선조 후기 만시가 의례의 일부로 고정되면서 만시의 대상과 일면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시를 창작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만시 창작에서 만시 대상에 대한 조롱까지 나타났다. 매천의 만시에는 이러한 의례적인 만시를 찾아보기 어렵다.

34) 黃玿, 『梅泉集』 卷五, 〈過寧齋墓〉 一紀云亡慟/ 秋山已短墳/ 輕身行古道/ 遺戀在斯文// 杳杳晴空雁/ 荒荒極浦雲// 無庸悲獨臥/ 在日已離羣.

35) 이병기, 김영봉, 『역주 매천황현전집』 권 下, 보고사, 2007, 421쪽.

매천은 〈絕命詩〉를 쓰고 자진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죽음을 예고하였다.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죽음과 더불어 왔기에 죽음을 객관화 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매천의 만시에 나타난 죽음은 의례적인 만시의 죽음과는 다르다. 그 귀결점이 모두 객관화된 죽음, 죽음과의 거리두기로 나타났으나 그 과정이 판이하다. 그의 작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매천의 죽음과의 거리는 司空圖의 〈沈着〉 7-8구의 ‘所思不遠/ 若爲平生’의 심상과 유사하다. 매천의 〈哭秋琴先生四首〉는 七言律詩 4수의 작품으로 韓末四大家이자, 매천의 멘토였던 추금 강위의 만시이다. 추금 강위는 1884년 매천이 30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매천은 강위의 장례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부고를 받고 창작한 작품이다. 첫 수를 고찰하면서 매천의 작품에서 司空圖의 〈沈着〉이라는 의경이 어떻게 투영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童時雷耳想魁梧	어려서 귀에 익히 들어 거인인가 여겼더니
及我見之山澤癯	뵈고 보니 파리하게 여위신 모습이네
局外雙瞳通萬國	형국 밖의 두 눈동자는 만국에 통하였고
書中寸舌破群儒	쓰신 글 한치 혀로는 못 선비 격으셨네
飄飄五岳黃精飯	오악으로 쏘다니며 黃精을 먹더니만
浩蕩千場白玉壺	호탕한 자리마다 백옥술병 비우셨네
深樹花開江月墮	깊은 숲에 꽃이 피자 강월이 떨어진다
一番來往世應無	한 번 왔다 가시니 세상엔 응당 이런 분이 없구나

〈哭秋琴先生四首〉³⁶⁾

매천의 〈哭秋琴先生四首〉는 眞景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 작품은 매천이 처음 추금을 만났던 때를 떠올리며 시작하고 있다. 수련에서 망자와 자신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만시의 일반적인 수법이다. 곧, 매천의 〈哭秋琴先生四首〉는 만시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과장이 없기에 소박하고 진솔하다. 합련과 경련에서는 대우를 통하여 살

36) 黃玑, 『梅泉集』 卷一, 〈哭秋琴先生四首〉.

아생전 스승의 위상과 호기를 잘 표현하고 있다. 尾聯은 스승의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자신의 모습을 스승의 작품을 인용하여 표로하고 있다.

이병기는 이 작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이 시는 매천과 추금과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는 弔挽詩이다. 1수(위의 작품)에서, 어릴 때 들던 추금의 풍모를 회상하며 시상을 도입하고 있으며, 추금의 업적을 추앙하고 있다. 특히 경련 ‘深樹花開江月墮’의 일곱 자는 고인이 된 추금 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돋보인다. 한시 작법상으로 함련과 경련의 대우가 각각 잘 짜여져 있다.³⁷⁾

매천의 〈哭秋琴先生四首〉는 이와 같이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추금 강위와의 만남, 스승의 위상, 나아가 스승의 죽음까지 담담하게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특히 尾聯에서 스승의 작품을 그대로 가져와 스승의 죽음을 비유한 부분은 정말 천의무봉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시의 의경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은 스승의 죽음과의 거리두기, 스승의 죽음을 객관화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매천에게는 많은 스승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사상과 문학 세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직접 시를 사사한 사람을 꼽는다면 왕석보일 것이다. 봉주는 석보의 장남으로 매천에게는 스승과 같은 존재였다. 그의 죽음을 맞아 매천이 지은 만시 〈哭鳳洲王先生〉을 고찰하고자 한다.

自我童年以丈呼	내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이라 불렀거니와
通家師友世應無	은 집안이 사우되긴 세상에 드문 일이외다
煙霞一榻棲南岳	연하가 자옥한 자리 남악에서도 지냈구요
雨雪聯筇赴上都	눈비 올 때 동행하여 서울에도 갔었지요
萬事天寒清霸淚	만 가지 일은 차가운 날씨에 청패에서 흘린 눈물ियो
千秋歲暮輞川圖	노년 세월은 왕유가 망천에서 그림을 ³⁸⁾ 그리듯 하였네

37) 이병기, 김영봉, 『역주 매천황현전집』 권 上, 보고사, 2007, 93쪽.

38) 네이버백과사전. 輞川圖, 중국 섬서성 남전현에 있는 谷川을 망천이라 부른다. 唐代的 王維가 이곳에 輞川莊이란 별장을 짓고 풍류를 즐겼다. 이로부터 이 일대의 뛰어난 자연

六句未出窮愁外 육순에도 곤궁함을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細檢遺詩眼欲枯 남김 시를 보고 또 보고 눈을 땔 수가 없구려
 〈哭鳳洲王先生〉³⁹⁾

매천의 〈哭鳳洲王先生〉은 七言律詩 3수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본 논의에 서는 두 번째 작품을 가져왔다. 연작시의 일부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매천이 왕봉주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나이다. 왕봉주의 죽음과 작중 화자인 매천과의 거리가 얼마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문학 작품이 심상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 전체에서 풍기는 정서를 느껴 보면 시상의 전개가 차분하고 침착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천은 왕봉주와의 특별한 인연을 首聯에서 밝히고 있다. 매천은 스승 왕석보의 세 아들과 모두 친교를 맺었는데, 세 아들은 스승과 친우를 넘나드는 조금은 애매한 관계였다.⁴⁰⁾ 하지만 매천은 이 작품에서 ‘自我童年以丈呼 通家師友世應無’라 하며 모두가 스승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함련과 경련에서는 왕봉주 선생과의 지난날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으며, 尾聯에 와서 왕봉주의 죽음을 애석해 하고 있다. 하지만 尾聯의 ‘六句未出窮愁外/ 細檢遺詩眼欲枯’로 표현 되는 슬픔이 정제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끝으로 노사 기정진의 죽음을 맞아 창작한 만시 〈奇蘆沙先生挽〉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관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하는데서 이 畫題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39) 黃玘, 『梅泉集』卷一, 〈哭鳳洲王先生〉. 나머지 두 수는 다음과 같다. 名山積翠鳳城東/ 王氏青箱世有風// 兩漢儒宗多教授/ 三唐詩學半窮工// 千秋入眼微醺後/ 浩氣如雲破屋中// 異日湖南耆舊傳/ 吾鄉判不漏斯翁.(첫 수) 經年淺土長蓬蒿/ 一日牛眠不費勞// 認載詩名棺柩重/ 稱封傲骨斧堂高// 何心冥府追才鬼/ 私慟空山有我曹// 極目江南春草綠/ 招魂聊擬續離騷.(셋째 수)

40) 연배를 고려해 본다면 첫째 왕봉주와 매천은 대략 20년 이상의 나이차가 난다. 그래서 스승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사친은 중간적 성격, 셋째 소찬은 친우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近世彬彬盛	근세에 훌륭한 인물 많았지만
眞儒竟亦稀	참된 유학자는 참으로 많지 않았네
先生起南服	선생이 홀로 우뚝 호남에서 일어나
隻手障東歸	두 손으로 이 나라의 오랑캐 됄을 막았네
寶鏡妖精伏	보배로운 거울에 요정이 굴복하니
霜旻宿曜輝	서리 내린 가을 하늘에 별빛이 반짝이네
微言足千古	성현의 말씀 천고에 드리웠으니
太息盪薔薇	길게 한숨 쉬며 장미꽃 이슬 받아 손을 씻네

〈奇蘆沙先生挽〉⁴¹⁾

매천은 망자 노사와 특별한 관계였다. 사제지간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노사가 매천의 학문과 시문을 높게 평가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천은 〈奇蘆沙先生挽〉에서 노사를 ‘眞儒’, ‘先生’, ‘聖賢’ 등의 시어를 통하여 일반화시키고 있다. 특히 尾聯에서는 ‘盪薔薇’이라는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매천의 〈奇蘆沙先生挽〉은 의례적 만시의 典型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작품 전체의 의경은 지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최대한 절제되어 沈着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 할 수 없다.

3.2. 悲哀의 吐露, 悲慨

司空圖의 二十四詩品 중 만시에 가장 어울리는 의경이 悲慨일 것이다. 만시는 죽음을 노래하니 당연히 슬퍼하고 개탄하는 심정이 곡진하게 우리나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시의 의례적 성격과 관용적 제작 형태가 만사에서 비개의 정서를 찾아보기 어렵게 만든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개가 매천의 만시에서는 훌륭하게 수용되고 있다. 먼저 사공도의 비개를 노래한 작품을 통하여 그 의경을 살펴본 후 매천 만시를 고찰하고

41) 黃玑, 『梅泉集』 卷一, 〈奇蘆沙先生挽〉.

자 한다.

大風捲水	큰 바람이 물을 말아 올리고,
林木爲摧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꺾인다네.
意苦若死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아,
招憇不來	쉬어가게 불러도 오지 않는다네.
百歲如流	인생 백년이 흐르는 물 같이 지나고,
富貴冷灰	부귀영화는 차가운 재가 되었도다.
大道日往	대도는 날마다 멀어지니,
若爲雄才	웅대한 재주는 어떻게 되었는가.
壯士拂劍	장사는 검을 털어버리고,
泫然彌哀	확연히 슬픔이 가득하도다.
蕭蕭落葉	쓸쓸히 낙엽지고,
漏雨蒼苔	빗물은 푸른 이끼에 떨어진다네.

〈悲慨〉⁴²⁾

사공도는 〈悲慨〉를 노래하면서 은유와 함축을 선택하지 않고 직서하였다. 〈悲慨〉의 3구에서 6구까지 그 의경이 잘 드러나 있다.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아/ 쉬어가게 불러도 오지 않는다네.// 인생 백년이 흐르는 물 같이 지나고/ 부귀영화는 차가운 재가 되었도다.”⁴³⁾ 슬퍼하고 개탄하는 심정이 곡진하게 표현되고 있다.

매천과 영재 이견창의 친교는 널리 알려져 있다.⁴⁴⁾ 매천은 영재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영재를 찾아 600리 길을 떠나다 부고를 받는다. 부고를 받고 바로 만시를 지으니 〈道中聞寧齋捐館已在六月十八日愕然下涕〉이다. 작품을 통하여 悲慨의 의경을 감상해보자.

42) 司空圖, 〈二十四詩品〉, 作品番號 十九.

43) 司空圖, 〈二十四詩品〉, 作品番號 十九. 意苦若死 招憇不來 百歲如流 富貴冷灰.

44) 李秉岐, 『매천시 연구』, 보고서, 1995, 40-44쪽.

李建昌, 『明美堂全集』, 명미당전집편찬위원회, 1984, 266쪽.

寧齋學士忽云亡	영재학사 홀연히 별세했다 하니
熱淚無徒落我裳	뜨거운 눈물 하염없이 옷깃을 적시네
人物眇然誰復有	인물은 묘연하니 그 누구 다시 있으리오
日星高潔永相望	해와 별처럼 고결한 인품 영원히 바라보리
史家記卒名山古	사가는 죽음을 기록해도 명산은 영원하고
遠客招魂江水長	멀리서 온 객은 혼을 부르나 강물은 유장하네
尙記客顏似紅玉	아직도 흥옥 같은 얼굴 기억하는데
六年一別瘴烟鄉	육년 전 이별이 영영 못 볼 이별이었구나.

〈道中聞寧齋捐館已在六月十八日愕然下涕〉⁴⁵⁾

매천의 만시 〈道中聞寧齋捐館已在六月十八日愕然下涕〉는 우선 詩題의 어디에도 만시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輓, 挽, 哭, 弔, 哀 등의 수사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捐館’이라는 어휘를 통하여 영재의 사망을 알 수는 있지만, 만시의 일반적 詩題는 아니다. 만시의 확장적 범주라 할 수 있는 회인시나, 추모시의 경우에는 가끔 시제에 輓, 挽, 哭, 哀, 弔 등의 수사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부고를 받고 즉석에서 지은 만시에서는 극히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임에는 틀림없다. 이것은 매천이 이 작품을 창작할 때 만시의 典型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知音의 죽음 앞에 그 슬픔이 시로 승화되고 있는 것이다.⁴⁶⁾

매천의 만시 〈道中聞寧齋捐館已在六月十八日愕然下涕〉의 슬픔의 강렬한 모습은 시제에 있다. 寧齋의 부고에 놀라고 슬퍼하는 모습이 가장 잘 표현된 시어를 찾는다면 ‘愕然下涕’일 것이다. 매천이 訃告에 놀라고, 평평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이 잘 그려졌다. 또한 顚聯의 “사가는 죽음을 기록해도 명산은 영

45) 黃玿, 『梅泉集』 卷三, 〈道中聞寧齋捐館已在六月十八日愕然下涕〉.

46) 매천이 쓴 영재의 또 다른 만시 〈聞寧齋葬期已過 作詩哀之情見于辭〉(黃玿, 『梅泉集』 卷三.)는 칠언율시 8수의 거작이다. 이 작품의 시제에는 ‘哀’字가 들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哀’字는 만시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용례가 아니다. ‘오호 통재라’처럼 관습적 ‘슬프도다’가 아니라 ‘000이 슬프도다’라는 슬픔의 구체성이 확보되어 있다. 그러므로 ‘哀’字의 위치 역시 문두나 문말이 아니라 문중에 쓰이고 있다.

원하고// 멀리서 온 객은 혼을 부르나 강물은 유장하네.”⁴⁷⁾라는 표현 역시 절구다. 흐르는 역사 속에서 ‘자연은 의구하데 인결은 간 곳 없다.’라는 시상이 오버랩 된다. 이러한 무상함 속에서 ‘遠客招魂’ 하는데 영재의 혼을 부르는 매천의 모습이 절절하다. 매천의 슬픔이 詩題에서부터 尾聯까지 절절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잘 그려지고 있다.

다음은 외삼촌 노응현씨의 만시이다. 七言律詩一首로 구성되어 있다. 매천이 44세 되던 1898년의 작품이다. 부모님은 모두 이미 여의었고, 이 때 매천이 어머니로 받들던 백모가 돌아가셨다. 매천은 생애 전체를 통틀어 창작한 만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인 21수를 44세 때에 지었다. 만시는 아무 때나 지을 수 있는 작품이 아니라는 걸 참고하면 이 시기의 매천을 보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지어진 매천의 만시에는 슬픔에 대한 곡진함이 더욱 넘쳐난다.

母族惟公有往來	외가 쪽으로는 오직 공만이 왕래하였지
屢嘆子得我家才	자주 내가 우리 집안의 재주꾼이라 탄상 ⁴⁸⁾ 하였지.
半世未能成宅相	반세상 동안 아직 집터 하나 장만하지 못하고
中途何遽赴泉臺	중도에 어찌 그리 급히 황천으로 가셨나
大化升沉誰不死	우주의 변화는 부침하니 누가 죽지 않으리오만
善人凋謝正堪哀	착하신 분 돌아가시니 정말 슬프도다.
薤歌擬把饌愆贖	만가를 잡고 누릉지도 공양 못함을 속죄하노니
小劫風塵首一回	잠깐 머물렀던 풍진세상 한번 돌아보고 가소서.

(盧戚應玄氏輓)⁴⁹⁾

매천은 광양 서석촌에서 태어났으나 11세의 이른 나이에 구례로 유학을 와서, 거의 평생을 구례에서 보냈다. 매천이 구례로 유학을 온 이유 중의 하나가

47) 黃玆, 『梅泉集』卷三, 〈道中間寧齋捐館已在六月十八日愕然下涕〉. 史家記卒名山古/ 遠客招魂江水長.

48) 탄상은 嘆賞과 嘆傷의 뜻이 정 반대이다. 여기에서는 嘆賞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9) 黃玆, 『梅泉集』卷二, 〈盧戚應玄氏輓〉.

구례에 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首聯의 ‘母族惟公有往來’는 字句 그대로 해석하기 어렵다. ‘往來’를 일반적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往來’는 親族 이상의 소통을 의미하고, 매천은 그러한 외삼촌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다. 이러한 슬픔은 尾聯의 ‘薤歌擬把饑窓贖’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

매천의 〈哀梁草溪〉는 七言律詩 一首로 구성되어 있다. 매천의 여러 기록과 『梅泉野錄』에 梁草溪⁵⁰⁾의 이름이 보이지 않으니, 만시를 써야 할 만큼 특별한 교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哀梁草溪〉의 詩題이다.

梁名漢奎 字文贊 家世南原鄉吏 晚假草溪啣 人稱梁草溪 漢奎素魁岸 以武俠聞 近日目擊時局 尤奮憤不自勝 乃以丙午臘月晦日 結遠近義士 襲鎮衛隊 事垂集 猝爲飛丸所洞 衆遂散 其家人藁殯官道傍旬日 日本兵弁自全州至者發其殯 面類生 目曠鬚張 怒氣勃勃 兵弁爲之搭影而去⁵¹⁾

매천은 양한규의 만시를 써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에 이처럼 긴 시제를 통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양한규의 삶이 만시를 쓴 이유이다. 시제에 쓰인 양한규의 ‘近日目擊時局 尤奮憤不自勝’은 기실 매천의 심경이다. 그래서 이 만시에는 슬픔과 비탄이 더욱 통렬하게 느껴진다.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50) 이병기, 김영봉, 『역주 매천황현전집』 권 中, 보고서, 2007, 335쪽. 초계군수를 역임한 바 있는 양한규는 지리산 일대를 근거지로 하여 1천여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남원 의병 대장으로 활동했다.

51) 黃玆, 『梅泉集』, 卷四, 〈哀梁草溪〉. 양씨의 이름은 한규이고 자는 문찬으로 대대로 남원 향리였다. 뒤늦게 초계라는 직함을 빌리게 되었으며, 사람들이 양초계라고 불렀다. 한규는 평소 체격이 크고 건장하여 무술이 뛰어난 협객으로 알려졌다. 요사이 시국을 목격하고서는 더욱 성내고 분해하며 스스로 이기지를 못하였다. 마침내 병오년 12월 그믐날,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의로운 志士들과 결의하여 진위대를 습격하였다. 일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날아온 유탄에 명을 마쳤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널리 흩어졌다. 그 집안 사람이 거적매기 빈소를 길 곁에 열흘을 두었다. 일본 병사가 몸소 전주에 이르러 떨어서 그 관을 여니, 얼굴이 살아있었다. 눈을 부릅뜨고 구레나룻이 성하였으며 노기가 성성하였다. 일본 병사가 그것 때문에 떨며 시신을 태우고서는 떠났다.

七尺堂堂態虎姿	당당한 칠척 장신 곰 호랑이 같은 풍채였고,
風塵顧眄足男兒	풍진 세상 돌이켜 보면 진짜 사나이였네.
高才未試憐身賤	높은 재주 시험하지 못해 천한 몸이 가련했고,
大義將伸歎數奇	대의를 장차 펼침에 기박한 운수 통탄스러웠네.
天外魂啼悲宇宙	하늘 끝에 원혼이 우니 우주가 서럽고,
地中尸出凜鬚眉	땅 속에서 시체가 나와 수염과 눈썹이 시퍼렇다네.
恍疑草木軍聲起	황홀한 초목은 군대의 소리에 일어나고,
夜夜蛟山月墮時	밤마다 교산 ⁵²⁾ 이 달을 무너뜨리는 때라네.

〈哀梁草溪〉⁵³⁾

이 작품에서 首聯은 양한규의 의병장으로서의 모습을 관용적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 頷聯에서는 좋은 세상을 만나지 못한 양한규에 대한 측은지심이 나타나있지만, 이것은 기실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합련에 와서 매천은 양한규에 자신을 투사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의 시안을 찾는다면 頸聯일 것이다. 천지를 울리는 슬픔과 분노가 ‘天外魂啼悲宇宙/地中尸出凜鬚眉’에 잘 드러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매천의 만시에는 망자에 대한 슬픔과 비탄이 곡진하게 표현되고 있다. 喪事에서는 슬픔이 가장 앞서야 한다. 슬픔이 사라지면 의례만 남게 된다. 만시 역시 슬픔이 가장 앞서야 하는데 이를 잘 보여준 시인이 매천이다. 그러므로 매천 만시의 아름다움은 悲慨에 있다고 하여도 크게 무리가 아닐 것이다.

4. 結 論

매천은 만시에 있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남긴 인물이다.

52) 네이버백과사전. 蛟山, 이무기. 아직 하늘에 오르지 못한 龍을 뜻함.

53) 黃玃, 『梅泉集』, 卷四, 〈哀梁草溪〉.

그러므로 그의 만시를 연구하는 작업은 한국 만시의 마지막 모습을 재구한다는 의미와 매천 문학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준다는 의미를 동시에 아우를 것이다.

특히 매천 만시의 문예미를 고찰함으로써 그 동안 만시에 대해서 가졌던 부정적 인식을 쇠신하고자 한다. 매천 만시의 어떤 점이 그의 작품에 예술성을 부여하고 있는가를 규명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이것은 한 개인의 천재성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문학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토양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아가 만시가 지닌 독특한 문학적 성과를 추출하여 과거 儒者 지식인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규명하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다.

만시는 죽음을 접하고 죽음을 소재로 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그래서 감정의 표출이 격하게 일어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과 같이 가까운 이의 죽음을 접하고 그 슬픔을 내면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수궁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의례적인 만시가 아닌 경우 만시에서는 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매천의 만시에는 이러한 감정을 내면화 하여 죽음을 객관화 하는 작품이 많다. 매천은 〈絕命詩〉를 쓰고 자진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죽음을 예고하였다.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죽음과 더불어 왔기에 죽음을 객관화 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매천의 만시에 나타난 죽음은 의례적인 만시의 죽음과는 다르다. 그 귀결점이 모두 객관화된 죽음, 죽음과의 거리두기로 나타났으나 그 과정이 판이하다. 司空圖의 二十四詩品 중 沈着의 의경이 매천 만시의 특성이다. 매천은 당대의 만시와 달리 죽음과의 거리두기, 객관화를 통하여 작품의 진경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것이 매천 만시의 아름다움이다.

司空圖의 二十四詩品 중 만시에 가장 어울리는 의경이 悲慨일 것이다. 만시는 죽음을 노래하니 당연히 슬퍼하고 개탄하는 심정이 곡진하게 우러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시의 의례적 성격과 관용적 제작 형태가 만시에서 비개의 정서를 찾아보기 어렵게 만든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비개가 매천의 만시에서는 훌륭하게 수용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매천의 만시에는 망자에 대한 슬픔과 비탄이 곡진하게 표현되고 있다. 喪事에서는 슬픔이 가장 앞서야 한다. 슬픔이 사라지면 의례만 남게 된다. 만시 역시 슬픔이 가장 앞서야 하는데 이를 잘 보여준 시인이 매천이다. 그러므로 매천 만시의 아름다움은 悲慨에 있다고 하여도 크게 무리가 아닐 것이다. 매천은 만시 창작에 있어 침착과 비개의 의경을 작품 속으로 가져와 그만의 아름다움을 획득한 것이다.

참고문헌

1. 資料

- 黃玿, 『梅泉集』
黃玿, 〈集聯序〉, 『文墨萃編』 上
李建昌, 『明美堂全集』, 명미당전집편집위원회, 1984.
司空圖, 〈二十四詩品〉
네이버백과사전(<http://terms.naver.com/>)

2. 논저

- 기태완, 『황매천시연구』, 보고서, 1999.
기태완, 『梅泉詩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김영봉, 「매천 시의 배율에 대하여」, 『고시가연구』 제1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97쪽.
(UCI: G704-001062.2004..13.004)
김정환, 「매천 황현의 구안실신고 연구」, 『한문학보』 제12집, 우리한문학회, 2005, 435-436쪽.
(UCI: G704-001598.2005.12.1.001)
金晋郁, 「栗谷 李珣 輓詩 研究」, 『문화와 융합』 43집, 한국문화융합학회, 2016, 383-406쪽.
(UCI: G704-SER000003938.2016.38.5.012)
金晋郁, 「傳統과 近代, 意識과 無意識의 境界點 〈園植十五咏〉 研究」, 『고시가연구』 제2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46쪽.
(UCI: G704-001062.2009..24.005)
金晋郁, 「梅泉 黃玿의 〈和小川論詩六絶〉 研究」, 『고시가연구』 30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2, 153-176쪽.
(UCI: G704-001062.2012..30.001)
金晋郁, 「梅泉 自然詩에 投映된 近代性 研究」, 『남도문화연구』 27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4, 112-113쪽.

(UCI: G704-SER000001883,2014.,27.006)

박금규, 「매천 황현의 〈논시절구〉 연구」, 우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손유진, 「愚伏 鄭經世의 輓詩를 통해 본 죽음의 形象化 方式」, 『퇴계학과 유교 문화』 54권,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4, 253-276쪽.

(UCI: G704-SER000001883,2014.,27.006)

안대회, 「한국 한시의 죽음의 문제」, 『한국한시연구』 3권, 한국한시학회, 1995, 49-80쪽.

안대회, 『궁극의 시학』, 문학동네, 2013.

안대회, 『한국 한시의 분석과 시각』,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유약우, 이장우 역, 『중국시학』, 명문당, 1994.

윤인현, 「고려 조선 유자의 만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56권, 한국한문학회, 2014, 107-144쪽.

(UCI: G704-000273,2014.,56.009)

윤재환, 「옥동 이서의 만시를 통해 본 조선조 만시의 일양상」, 『한민족어문학』 65호, 한민족어문학회, 2013, 343-383쪽.

(UCI: G704-001066,2013,65,002)

李秉岐, 『매천시 연구』, 보고서, 1995.

이병기, 김영봉, 『역주 매천황현전집』 권 下, 보고서, 2007.

이병주, 『한국한시의 이해』, 민음사, 1987.

이정화, 「퇴계 이황의 만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9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0, 49쪽.

하정승, 「고려후기 挽詩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동방한문학』 50권, 동방한문학회, 2012, 35-69쪽.

(UCI: G704-000973,2012.,50.002)

허경진, 「매천의 죽음과 문학적 성과」, 『민족문화』 36집, 한국고전번역원, 2010, 45-70쪽.

(UCI: G704-001842,2010,36,36,007)

황수정,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Abstract |

A Study on the Literary aesthetics in Mansi of Maecheon

Kim, Jin-wook

As a subtitle of the moment, the poem refers to the death of poetic material, and a monument to mourn the subject of death. Mansi is created in a special situation called Death. Thus, depending on the perception of death and personal perception of death, each piece bears the same resemblance and difference.

The similarity of the work has accumulated the distinction of genre, and the differentiation has given Mansi the value of Mansi to literary work and art. Maecheon is a figure of considerable achievement in Mansi. Therefore, the study of his Mansi will be the culmination of his Mansi's final appearance and the implications of broadening the perception of Maecheon literature.

In particular, it would be a significant task to clarify what Maecheon Mansi's artistic merit is to characterize Maecheon Mansi's works. This is because it is not a problem confined to a person's genius, but also a matter of soil that could bring about such a literary accomplishment. This will create a basis for identifying the unique literary achievements of Mansi and identifying awareness of the 'Death of the Past' by Mansi.

Mansi wrote about death and wrote about death. Thus, it would be logical for the expression of emotion to be aroused.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asily accept the fact that it is possible to interdigitate someone close to the close of the family and internalize them. For this reason, in Mansi, the emotional situation often occurs in Mansi.

Maecheon Mansi has many paintings that materialize death by internalizing these emotions. Death in Maecheon Mansi is different from the ritual of the dead. The end of the process appears to be the objective of the death, death, death, but the process. Among Sagongdo's Yisipsasipoom, the evaluation of serenity is the hallmark of Maecheon's Mansi.

Unlike Mansi, Maecheon was able to capture a piece of work through objectivization and objectification. This is the beauty of Maecheon Mansi.

Among Sagongdo's Yisipsasipoom, the best possible candidate for Mansi would be Bigae. Mansi will sing of his death, understandably weeping and wailing. However, it is true that Mansi's formal nature and idiom made it difficult to find a non-market sentiment at bay. Nevertheless, the great grief is well accommodated in Maecheon's Mansi.

Mansei's Mansei writes lament the sorrow and grief of the deceased. In Bigae, sadness must be the most extreme. When sorrow dies away, only a ritual remains. Mansi also suffered most of her sorrow, which is a poet who exemplified him well. Therefore, Mansei's beauty resides in Bigae. Maecheon took his own beauty and captured his own beauty in the writing of Mansi and Bigae.

Key words : Maecheon, Hwanghyeon, Mansi, Composure, Bigae, Sagongdo, Yisipsasipoom

